

Photo credits: E.J.F

# 어업 투명성 연대

Coalition for Fisheries  
Transparency



# 도전과제

자연산 수산물 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식자재이며 인간이 여전히 전 지구적으로 채취 활동을 하는 마지막 식량 자원이지만 이에 대해 아직도 많은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어업 정보, 어업 활동 및 의사 결정에 관한 개방성 및 책임성이 결여된 상태로 어업 부실관리; 불법 조업; 인권침해 및 노동착취; 자원에 대한 불공정한 접근; 그리고 사기와 부패가 만연해 있다.

그 결과 연안지역에서는 남획, 생계 위험, 식량 불안정성이 초래되고 어업 종사자들의 안전 및 안보에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투명성은 복잡하고 일관적이지 않은 국제 어업 관리 시스템과 함께 범법자들에게 법을 우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불법 어업과 같은 행동이 제지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야기한다.

# 해결책 – 투명성

우리의 해양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밝히는 글로벌 투명성 정책은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뒷받침하면서 해상에서 이러한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포획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면서 모든 이에게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투명성은 합법적, 윤리적, 지속 가능한 어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여기에는 어민, 연안지역, 수산물 구매업자, 정부, 지역 단체, 언론인 및 시민사회 조직이 포함된다.

투명성이 없으면 정책과 집행의 진전은 개인과 프로젝트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고 공급망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 어업 투명성 연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수산업 활동으로 인해, 우리는 협업을 통해 투명성 제고에서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어업 투명성 연대는 이러한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 거버넌스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지지하는 시민사회 회원들 간의 글로벌 커뮤니티를 구축 중이다.

본 연대는 회원 단체들이 공동 전략에 대해 협업하고 그들의 노력을 조율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어업 투명성을 위한 이들의 지지 노력의 영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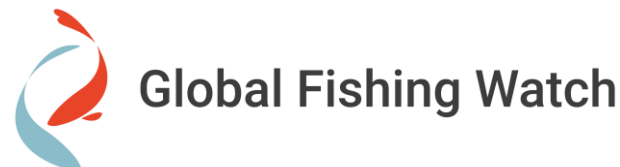
본 연대가 기울이는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본 연대의 투명성을 위한 글로벌 헌장(Global Charter for Transparency)에 명시된 원칙과 같은 어업 정책 원칙을 정부가 채택하도록 지지 노력을 펼치고 있는 NGO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 우리는 누구인가

이 이니셔티브의 중심에는 담당 지역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당면한 도전과제를 파악하고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분야를 결정함으로써 본 연대의 일을 추진하고 있는 회원 단체들이 있다.

산업 어업 및 소규모 어업과 관련한 정책 개혁에 종사하는 전세계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회원 명단은 [fisheriestransparency.net](http://fisheriestransparency.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Leading the Coalition은 오세아나(OCEANA), 씨푸드레거시(SEAFOOD LEGACY), 시민환경연구소, 세계 어로 감시(Global Fishing Watch), 세계자연기금(WWF), 피알시엠(PRCM), 환경정의재단(EJF) 등을 포함한 NGO들의 운영 위원회이다.



# 글로벌 헌장을 통한 투명성 제고

전세계의 사례를 보면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강력한 어업 투명성 이니셔티브가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투명성 정책의 글로벌 시행 격차는 여전히 남아있기에, 본 연대는 시민 사회의 노력을 조율하기 위해 어업 투명성을 위한 글로벌 헌장을 만들었다.

글로벌 헌장은 본 연대 회원들을 위한 뼈대 역할을 하는 10개의 투명성 정책 원칙이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져 있어 국가 및 지역 전략에 대한 그들의 협력을 촉진하고, 격차를 확인하여 메우고, 궁극적으로는 전세계의 어업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글로벌 헌장을 어업 거버넌스에 관여된 모든 참여자들이 공평하고 효과적인 일련의 원칙으로 삼을 수 있도록, 본 연대는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본 헌장에 관한 공공 협의에 참여하였다. 본 연대는 산업계, 시민사회 단체, 학계, 소규모 어업인 및 기타 이해 당사자 등 폭넓은 범위의 어업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

# 어업 투명성을 위한 글로벌 헌장: 정책 원칙

글로벌 헌장의 원칙은 각국이 법과 관행에 채택하여 선박과 어업 활동에 대한 정보를 폭 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 부실 관리, 불법 어업, 해상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응하는 어업 관리 조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헌장은 전체 어업 부문을 대상으로 하며 수산업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지만, 본 연대는 일부 원칙이 모든 소규모 어업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전에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바이다.

# 원칙 1

모든 어선, 냉장운송선박 및 공급선 (이하 '어선')이 고유식별번호를 획득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번호를 유엔 식량 농업기구(FAO) 국제 어선 정보등록(Global Record), 지역수산관리기구(RFMO) 및 기타 관련 기관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모든 어선은 평생 동안 유지되며 국제 어선 정보등록에 제공되는 고유번호를 보유해야 한다. 이 번호는 해당 선박의 식별자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당국은 해당 선박의 이력을 파악하고 불법 행위를 추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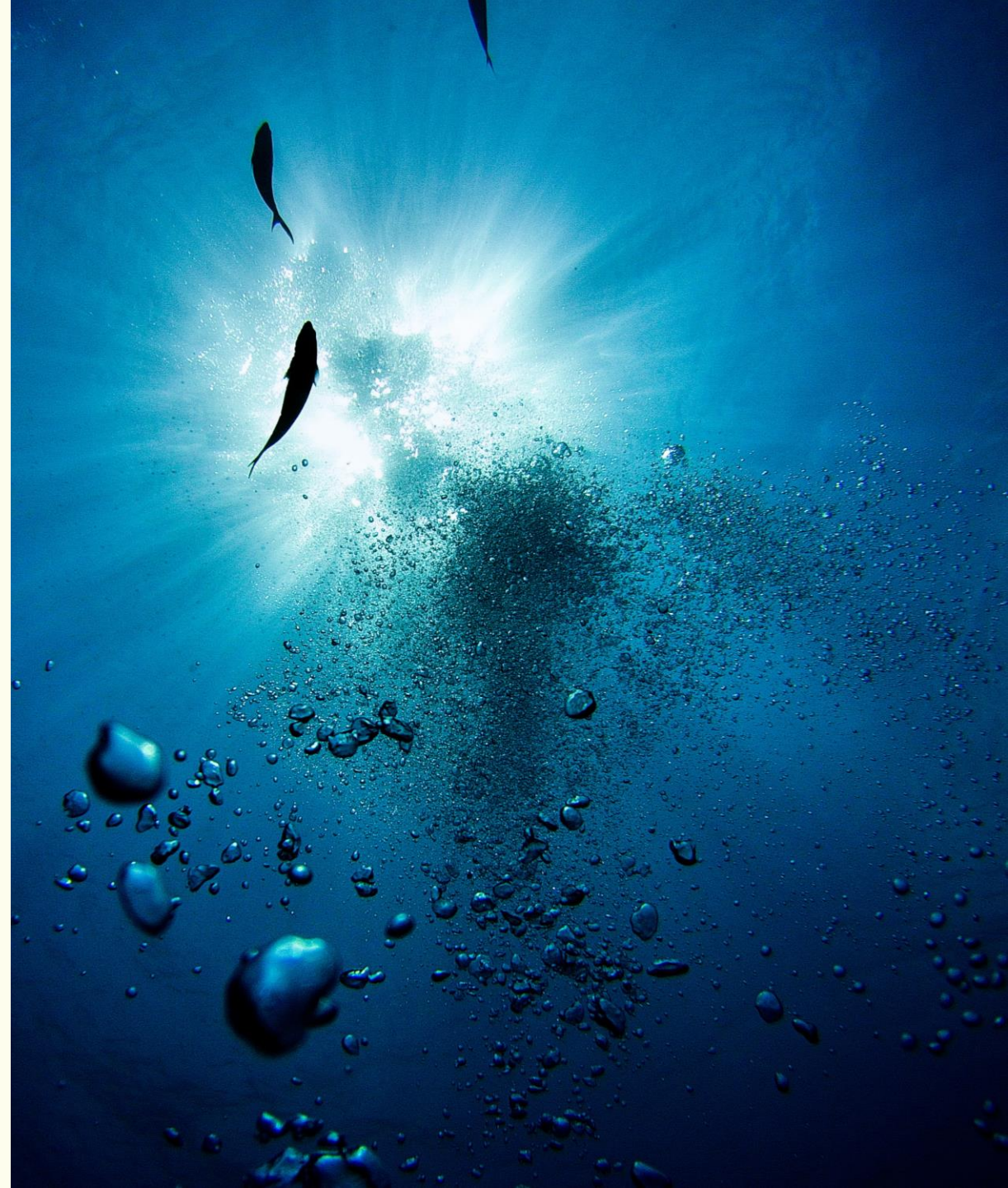


## 원칙 2

어선 허가증(주요 선박 정보 포함), 인가, 보조금, 공식 접근 협정 및 제재(어업 및 노동법 위반행위)에 관한 통합된 최신 목록을 발간하고, 이 정보를 FAO 국제어선 정보등록에 제공한다.

*당국은 이러한 선박 정보를 통해 각 선박의 어업활동이 허용되는 곳과 이들이 이전에 어떤 위법행위로 제재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선박 추적 데이터와 함께 사용하여 선박을 감시할 수 있고, 비허가 구역에서 이뤄진 어업 및 불법 어구를 사용한 어업은 처벌할 수 있다.*



## 원칙 3

선박의 수익 소유권을 공개한다.

선박 소유자는 해상에서 불법 행위에 관여해도 집행 당국과 대중으로부터 그들의 진짜 정체를 숨김으로써 기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 선박을 통제하며 궁극적으로 해상에서 불법 행위로 이득을 얻는 선박 소유주인 수익 소유자에 대한 이해, 노출 및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 원칙 4

선박과 선박의 기국 간의 정확한 연결을 위한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제91조 요건을 집행함으로써 어선의 편의치적 이용을 근절하고, 선박의 기에 상관없이 선박이 불법 어업 및 관련 범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선박은 처벌한다.

*선박은 주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최소한도로 감시하거나 국제 어선 규제의 집행을 제한하는 국가에 등록하는데, 이러한 국가는 '편의치적국'으로서 선박이 지속적으로 불법 어업을 반복하고 제재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



## 원칙 5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VMS) 데이터를 공유하고, 기타 비공개 시스템(non-public systems)을 공유하거나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을 강제함으로써 선박의 위치 공개를 의무화한다.

*어선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당국이 불법 어업과 관련된 선박을 추적할 수 있고, 수상한 선박 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



## 원칙 6

사전 승인을 받고, 면밀히 감시되며 공개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한, 선박 간 어획물 환적을 금지한다.

선박 간 어획물 환적 관행으로 어선은 수 개월에서 길게는 수 년까지 새로 포획한 어획물을 양륙하기 위해 물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종종 검사를 받지 않고, 해상에서 장기간 머문다. 이로 인해, 선박에서 선원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의지에 상관없이, 임금을 지불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해상에서 오랜 기간 체류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 보호 및 선박 간 환적된 수산물의 추적을 위해, 각 이동은 반드시 승인, 감시 및 기록되어야 한다.



## 원칙 7

주요 데이터 요소를 공개하는 관련 어획물 관리 조치를 준수함과 동시에, 수산물이 바다에서 채취되어 가정에서 소비되기까지의 과정이 합법적이고 추적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통제 시스템의 채택을 의무화한다.

*각국은 반드시 바다에서 채취되어 가정에서 소비되기까지의 수산물 공급망 내 각 단계에서 수산식품을 추적하는 견고한 수산물 추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합법적인 방식으로 채취된 수산물만 공급되었을 유통 경로에 추적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불법적으로 포획된 수산물이 함께 섞이는 경우, 소비자의 접시 위에 올라와 있는 수산식품이 합법적으로 채취된 것인지 아닌지 구별할 방법이 없다.*



## 원칙 8

FAO 항구국 조치협정(FAO 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국제노동기구(ILO) 노동기본원칙과 권리 선언, ILO C188 및 국제해사기구(IMO) 케이프타운 협정(Cape Town Agreement) 등을 포함해 어선 및 수산물의 무역에 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운 국제 협약을 비준하고 따른다.

*이러한 국제 기준은 어업인들을 보호하고 불법 조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한다.*



## 원칙 9

어업 규정, 규제, 보조금, 어업 예산 및 수산 자원 접근성에 관한 결정을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소규모 어업인, 어업 종사자, 지역 사회, 산업 협회 및 시민 사회의 정보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해, 수집된 모든 어업 데이터 및 과학적 평가 내용을 발행한다.

이러한 과정, 정책 및 결정은 대중 및 집행 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 접근 및 어업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은 소규모 어업인의 희생을 대가로 대규모 수산업을 우선시하지 않는 공평한 어업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 원칙 10

선원 신원 및 인구 통계(국적, 나이, 인종 및 성별 포함), 계약 조건, 채용 기관, 선박에 합류하는 위치 및 수단, 선박 위에서의 상황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검증하며 이러한 정보를 종합된 형태로 발행한다.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왜 어업 근로자들이 선박에 승선했는지에 관한 정보는 어선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노동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당국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선박 운영자들이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선박을 운영하는지 감시하고 이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Coalition for Fisheries  
Transparency



---

어업 투명성 연대에 관한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E-mail을 보내 주세요.

홈페이지: [fisheriestransparency.net](http://fisheriestransparency.net)

E-mail: [info@fisheriestransparency.net](mailto:info@fisheriestransparency.net)

